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광분야 R&D 로드맵 관련 지식경제부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가 지난 8월 23일 서울 방배동 소재 함지박 별관에서 '광분야 R&D 로드맵 관련 지식경제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에서 LED 및 광분야의 국가 로드맵을 담당하고 있는 오대곤 프로젝트 디렉터(PD)를 비롯해 20여 명의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외 광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차세대 광분야 R&D 로드맵의 주요 분야에는 산업용레이저 및 응용생산 기술, 통신, 광 의료기기 및 생명광학기기, 군수, 광영상, 광소재, 광계측 산업, IT consumer 등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들 분야에서 활동하는 캐리마 이병극 사장, 세코닉스 최무길 부사장, 프로옵틱스 정진호 사장, 이오시스템 고병호 부장, 재영솔루션 유병택 수석연구원, 박규섭 책임연구원, 신광 백근우 팀장, 송동용 팀장, 그린광학 김



▶ 지난 8월 23일 서울 방배동 소재 함지박 별관에서 광분야 R&D 로드맵 관련 지식경제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동균 연구소장, 뷰웍스 김후식 사장, 에이옵틱스 이상길 상무, IVU OPTIC 김구철 사장, 액츠 박종명 상무이사 등이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박춘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가 지식경제부 내부 방침에 따라 기계항공시스템과에서 전자산업과로 이관됐다. 이에 협회에서 광분야 R&D 관련 로드맵을 기획 및 주관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방문해 전반적인 광학업계의 동향 및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국가광전략 R&D 로드맵 회의에 참관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광분야 업체 관계자들과 국가광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이번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 간담회가 향후 국내 광학산업계 현장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오대곤 PD는 “산업 중심의 로드맵을 만들려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야 한다. 산업을 무시한 기획은 어불성설이다. 각 기업을 찾아다니며 비전 및 애로사항을 경청해야 하나 현실적인 제한이 많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가 크다.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에서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 결정자들에게 광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산업을 알리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내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회원사 대표 및 관계자들은 광산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우선 뷰웍스의 김후식 사장은 “IT consumer 분야에서 광학 부품 산업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5개의 렌즈가 필요한 휴대폰 모듈 하나의 가격이 3, 4 달러로 렌즈 하나에 500원 가량인 셈이다. 사업규모로 보면 1년에 3~4000억 원이다. 하지만 실제 1~200억 원도 남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이나 대만과 경쟁해 이기기 어렵다.”고 IT consumer 분야의 상황을 전했다.

그린광학의 김동균 연구소장은 “광소재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각 회사의 매출액을 살펴봤다. 매출액이 공개돼 있는 19개 회사의 2011년 자료를 보니 모두 합쳐 1조 원 가량이었다. 이중 영업이익이 평균 7%다. 핸드폰 관련 회사는 평균 3%이며 적자인 곳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재화를 투자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많은 기업들

이 이런 악조건 속에 놓여 있다. 이제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해외의 후발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코닉스의 최무길 부사장은 “앞으로 자동차 관련 광학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후방 카메라와 전방 카메라를 비롯해 LED 전조등, 블랙박스 등 자동차 관련 광학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물론 사람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검증 부분이 까다롭겠지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자동차 관련 광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광학소재 공급업체인 신광의 백근우 팀장은 “국내에는 용해업체가 전무해 제품 생산을 위한 소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국내 광학업체에서 부품 생산을 위한 원가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다. 민영 기업은 초기 투자에 대한 위험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살아남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처럼 용해시설을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재 공급의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금형을 이용해 각종 부품을 제작하는 재영솔루텍의 유병택 수석 연구원은 “우리 회사는 스마트폰용 8M 렌즈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삼성이나 LG가 성장하는 만큼 협력사들의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하지만 모바일 시장의 악화로 인해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급세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생산설비 구입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만 등의 정부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도입하면 광학회사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캐리마의 이병극 사장은 “이제는 힘을 합쳐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한데 모여 기술 및 자금을 연계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연구소 및 학교에서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 PD는 “파급 효과나 가치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광산업의 현 상황에 나 또한 동일 산업의 일원으로 울분을 느낀다. 우리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정부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